

여성의 성장과 근대성의 상징적 형식

-오정희의 유년기 소설을 중심으로-

심진경*

1. 머리말
2. 여성의 성장과 성 정체성에 이르는 길
3. 여성의 존재조건과 모순된 현실의 내면화
4. 근대성의 상징적 형식으로서 오정희 유년기 소설의 의미: 결론을 대신하며

초 록

많은 평론가들은 사회와의 단절과 그로 인한 자아분열, 그리고 현실과 화해하지 못함으로써 야기되는 왜곡된 감수성과 불모의 육체성, 심리적 불안정 등을 오정희 소설의 주요 모티프로 지적한다. 그리하여 오정희의 소설세계는 친숙함과 안정의 장소가 아닌, 일탈, 혼동, 낯섬의 장소로 인식되며 사회화과정을 수반하는 성장소설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간주되었다.

오정희의 유년기 소설을 성장소설로 보기를 주저하는 이 같은 논자들의 이면에는 공통적으로 오정희 소설의 토대가 되는 특성을 여성성으로 보고 이러한 여성성을 사회적인 것이 부재하는 것을, 즉 현실의 사회, 역사적인 측면이 배제된 채 사적인 것만이 존재하는 영역으로 해석하는 태도가 깔려 있다.

이 논문은 오정희 유년기 소설을 성장소설의 한 형식으로 보고, 그것의 의미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오정희 유년기 소설에서 여자아이들은 모성 거부를 통해 자신의 성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이는 여성의 육체를 모성적인 것에만 한정하는 거부장적인 질서에 대한 부정임을 함의한다. 아울러 이러한 변화는 사회적 격변기를 배경

* 서강대 강사.

으로 하면서 새로운 사회 질서인 자본주의적 경제논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왜곡의 과정을 겪게 된다.

1. 머리말

한때 여성작가가 쓴 소설이면 무엇이든 자연스럽게 ‘여류문학’이라는 독립된 범주로 묶인 적이 있다. 그리고 이처럼 작가의 성별에 따라 텍스트를 범주화하는 방식은 텍스트의 수용과 유통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여성이 쓴 텍스트는 그것이 여성적 미학이나 페미니즘적 논리에 부합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비슷하게 해석되기도 했다. 그 결과 ‘여성문학’이라는 개념은 ‘여성’이라는 생물학적 성차를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내세우는 문학의 하위 장르인 것처럼 받아들여졌으며, 관습적으로 여성에 부가되는 여러 가지 자질들, 예컨대 ‘사적인’, ‘내면적인’, ‘수동적인’ 등의 자질들은 이러한 여성문학의 중심적인 성격으로 이해되어 왔다. 특히 이러한 ‘여성 문학’에 대한 평가는 ‘개인의 내면 세계에 대한 성찰’로 요약될 수 있을 정도로 일면적으로 내성적 성격에 초점이 맞춰지는 경향이 있다.

오정희는 이러한 평가의 중심에 있는 작가이다. 많은 평론가들은 사회와의 단절과 그로 인한 자아 분열, 그리고 현실과 화해하지 못함으로써 야기되는 왜곡된 감수성과 불모의 육체성, 심리적 불안정 등을 오정희 소설의 주된 모티프로 지적한다. “존재의 진실의 추구”, “살의의 섬뜩한 아름다움”, “태어남과 죽음이라는 삶의 양면성에서 느껴지는 긴장감”, “잔잔함의 이면에 섬뜩한 두려움을 가진 작가” 등의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오정희 소설에 대한 평가는 하나같이 소설의 내성적 성격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이처럼 현실 세계와의 불화 때문에 오정희의 소설 세계는 친숙함과 안정의 장소가 아닌, 일탈·혼동·낯섦의 장소로 인식되며, 사회화 과정을

수반하는 성장소설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간주되었다. 김윤식과 정호응은 전쟁을 배경으로 유년기 여자아이의 성적인 성장 과정을 다루고 있는 오정희의 「중국인 거리」를 언뜻 보아 성장소설인 것 같지만 사실은 성장소설이 아니라고 평가한다. 그것은 이 소설이 주인공이 세계에 눈떠가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자아와 세계의 단절에 대한 확인을 주제로 삼고 있으며, 주인공들이 무시간성의 세계 속에서 아무도 성장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¹⁾ 김경수는 위의 논의와는 다른 측면에서 유년기 화자의 성장 거부에 관해 지적한다.²⁾ 즉 유년기 여자아이들은 자신들의 성적인 정체성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가부장제적인 젠더 이데올로기의 현존을 깨닫게 되고, 이처럼 여성 억압의 현실을 인식한 화자는 광기에 휩싸이게 됨으로써 현실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내면 세계에만 안주하게 된다는 것이다.

오정희의 유년기 소설을 성장소설로 보기를 주저하는 이같은 논의들의 이면에는 공통적으로 오정희 소설의 토대가 되는 특성을 여성성으로 보고, 이러한 여성성을 사회적인 것이 부재하는 것으로, 즉 현실의 사회·역사적인 측면이 배제된 채 사적인 것만이 존재하는 영역으로 해석하는 태도가 깔려 있다. 그러나 여성성과 사회성,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을 이분법적으로 파악하는 이러한 해석은 여성을 역사가 소거된 사적인 영역에 위치지음으로써 여성이 역사적 과정과 맺는 관계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된다. 그런 측면에서 오정희 소설에 등장하는 여자아이(들)이 가족적 유대와 여성의 정체성이 위협받는 시기에 어머니·딸·아내로서의 성적 정체성을 체득하는 과정을 단순히 한 개인의 사사화(私事化)된 내밀한 영역의 구축 과정으로 축소시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한 개인의 사적인 감정은 역사적 본질을 갖고 있으며, 그런 측면에서 여성성의 영역은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이 중층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영역으로 보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오정희의 초기 유년

1) 김윤식·정호응, 『한국소설사』(1993, 예하), p.412.

2) 김경수, 「여성적 광기와 그 심리적 원천」, 『작가세계』, 1995년. 여름.

기 소설을 성장소설로 볼 수 없다는 시각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그러한 관점에서 오정희의 소설 중 유년기 화자가 등장하는 「완구점 여인」 「유년의 딸」 「중국인 거리」를 성장소설로 보고, 그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성장이 모성성의 수용 혹은 어머니 되기를 통해 완성된다고 보는 기존의 시각과는 다른 시각에서, 오정희 소설의 인물들이 어떻게 모성에 대한 거부에서 출발하여 여성의 존재조건을 내면화하는 가운데 성 정체성을 획득하면서 성장하게 되는가에 초점을 맞춰 이들 소설에 접근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는 사회적 격변기에 진행되는 여자아이의 성적인 성장담이 어떻게 근대성을 드러내는 하나의 형식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로 이어질 것이다. 오정희 소설에 나타나는 이러한 여성의 성장 과정에 관한 고찰은 그 동안 오정희 소설의 여성 인물을 사회·역사적 변화와는 무관하게 내면적 세계에만 갇혀 있는 인물로만 한정시켜 평가한 것에 대한 비판을 함축하게 될 것이다.

2. 여성의 성장과 성 정체성 자각에 이르는 길

오정희의 유년기 소설이 전형적인 성장소설로 범주화될 수 있는가 아닌가 하는 점은 사실 중요하지 않다. 다만 그 소설들이 남자아이의 교육이나 성장과는 아주 다른 체험을 수반하는 여자아이의 성장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 논의를 훨씬 더 생산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전쟁에서 막 벗어나 근대화과정에 놓여 있던 사회적 격변기에 유년기의 여성 화자가 어떻게 그들 주변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와 타협하면서 여전히 가부장제적 질서에 의해 통제되는 가족이라는 경계 내에서 성장하는가를 살펴봄으로써, 그들이 낯설고 불안정한 세계를 헤쳐나가면서 만나는 상실감과 공포, 혼란스러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완구점 여인」 「유년의 딸」 「중국인 거리」에는 공통적으로 성장기의

여자아이가 서술자로 등장한다.³⁾ 이 소설들에서 특징적인 것은 어머니가 부정적으로 형상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완구점 여인」의 어머니는 어릴 적 ‘나’의 가정부에서 어머니로 위치를 바꾼 뒤 끊임없이 아이를 낳아 항상 배가 부풀어 있으며, “눈 가장자리에 안경을 낀 듯 시커멓게 기미가 덮여 있는” 그로테스크한 모습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유년의 뜰」에 나타나는 어머니는 전쟁중에 헤어진 남편을 대신하여 집안 경제를 책임지게 되는데, “다산의 흉한 주름이” 가득한 육체를 읍내 저자거리에서 매매하면서 ‘늙은 갈보’라는 별명으로까지 불리게 된다. 「중국인 거리」에서 여덟 명의 아이를 낳는 어머니는 “비통하고 처절한” 동물적 삶의 소유자로 그려진다. 이러한 어머니의 모습에 대한 부정적 형상화는 초기 오정희 소설에서 매우 빈번하게 나타나며, 「완구점 여인」이나 「번제」와 같은 작품에서는 이러한 모성에 대한 거부 의식이 뚜렷한 의미구조로 자리잡고 있다.

오정희의 유년기 소설을 대체로 여자아이의 성장 거부의 이야기로 해석하는 논의는 이처럼 어머니가 부정적으로 형상화되고 모성에 대한 거부 의식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그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여성의 성장이 어머니가 됨으로써 완결된다는 성장 모델에 근거한 논의로서, 그 자체로 성별화된(gendered) 시각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기실 여자아이들의 모성 거부는 단순히 어머니라는 특정 대상에 대한 거부라기보다는 그들과 같은 삶, 즉 피난지에서의 고된 삶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아이를 낳아 길러야만 하는 그들의 삶의 방식에 대한 거부이며, 나아가 여성의 육체를 모성적인 것에 한정하여 이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가부장제적 규범에 대한 거부로 해석되어야 한다.⁴⁾ 따라서 여자아

3) 이하 「완구점 여인」(『불의 강』, 문학과지성사, 1995(재판))과 「유년의 뜰」, 「중국인 거리」(『유년의 뜰』, 1981, 문학과지성사)의 인용은 인용한 책의 면수만을 밝힌다.

4) 줄고, 「오정희 초기소설에 나타난 모성성 연구」, 『한국문학과 모성성』(태학사, 1998) 참조.

이의 모성 거부는 여성에게 가해지는 억압의 현실에 대한 인식의 과정으로서, 그들의 성장과정에 필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여성의 글쓰기에서 억압에 대한 자각은 자기 발견과 성장에 도달하기 전에 반드시 요구되며, 그러한 여성의 성장 과정은 가부장제적 규범과 친숙함으로부터의 탈피를 수반하기 때문이다.⁵⁾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주로 이상 행동⁶⁾을 통해 외적으로 표출되는 이러한 여자아이들의 모성 거부가 성적인 것(sexuality)에 대한 자각과 매우 긴밀한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여자아이들의 모성 거부의 이면에는 사회적으로 금기시된 성적 호기심의 발현이나 욕망의 자각이 자리잡고 있다. 「완구점 여인」에서 이는 어머니의 육체에 대한 혐오감과 완구점 여인에 대한 성적인 이끌림을 동시에 경험하는 여자아이의 모습을 통해 나타난다. 「완구점 여인」의 서술자인 ‘나’는 소아마비를 앓던 동생이 죽은 후 가정부에서 어머니로 위치를 바꾼 계모에 대한 강렬한 증오를 “생활의 유일한 원동력인 것처럼”(p.244) 생각하면서, 이러한 정서적인 공백을 완구점 여인에게서 빨간색 오뚜기를 사모으는 것을 통해 메꾸려고 하는 여자아이이다. 빨간색 오뚜기를 사모으는 ‘나’는 그것을 통해 정서적으로 “위안을 받”(p.241)기도 하지만, 그러한 행위는 다른 한편으로는 “한 개의 커다란 인형”(p.234)으로 형상화되는 완구점 여인에 대한 성적인 이끌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완구점 여인과의 성적인 접촉 이후 ‘나’는 “춘화와도 같은 여인과의 정사”(p.245)를 몹시 부끄러워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녀에게 이끌리는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다. 이렇듯 완구점 여인과의 동성애적 관계에 빠지는 ‘나’는 여성의 성에 대한 모순적이고 양가적(兩價的)인 인식을 갖게 되는데, 오정희의 여성 인물이 성장에 이르게 되는 과정에는

5) Rita Felski, *Beyond Feminist Aesthetics*(Harvard University Press, 1989), pp.133~138 참조.

6) 오정희의 소설에서 여주인공의 이상 행동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좋고, 앞의 글, pp.35~40 참조.

그러한 성적인 자각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성적인 자각이 여성의 성, 나아가 모성에 대한 기존의 관습적인 가부장제적 인식들을 해체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작품 속에서 ‘나’는 아이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생물학적 모성의 육체를 가진 어머니에게는 죽음의 충동만을 느끼지만,⁷⁾ “다리가 몽텅 잘린” 불구의 비모성적 육체를 지닌 완구점 여인에게서는 성적인 충동을 느낀다. 여기서 서술자는 관습적으로 비정상적인 육체로 간주되는 불구의 여성 육체를 관능적이고 생명력 있는 것으로, 반면에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모성적 육체를 죽음과 관련짓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서술자의 태도로 인해, 여성의 성에 대한 정상/비정상의 이분법적 구분 자체는 모호해진다. 나아가 서술자에 의해 관능적인 육체를 가진 존재로 간주되는 완구점 여인 역시 출산의 경험이 있다는 사실과, 만삭으로 “배가 한껏 부푼” 어머니가 성적 쾌락에 이끌린다는 사실은 여성의 육체를 모성적 육체와 관능적 육체로 나누기 어렵다는 결론으로 이끈다. 이처럼 여성의 성에 대한 관습적인 이분법의 해체는 모성적 재생산의 도구로서의 여성의 육체를 거부하고 솔직한 관능적인 욕망의 표현 기체로서의 여성 육체를 발견하게 되는 과정과 맞물려 있다.

그러나 오정희의 유년기 소설에서 여자아이들이 모성을 거부하고 가부장제적 규범에서 일탈된 성적 욕망을 자각한다고 해서, 그것을 끝까지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완구점 여인」에서 완구점 여인과의 동성애적인 관계를 맺는 여자아이가 “관능과 혐오”의 모순된 감정에 빠지는 것처럼, 모성적 육체를 거부하고 관능적 육체를 통해 성적인 자각에 이르게 되는 여자아이의 내면에는 그에 대한 죄의식이 자리잡고 있다. 이는 오정희 소설의 여자아이들이 자신의 솔직한 성적 욕망의 표출이 기존의 가부장제적인 사회 속에서는 비도덕적이고 일탈적인 것으로 처벌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자각하고 있다는 것

7) 이는 어머니가 낳은 아이들이 돌도 채 되지 않아 죽어나간다는 서술자의 진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을 의미한다. 이처럼 여성의 성에 대해 양가적이고 모순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 여자아이의 모습은 「유년의 뜰」에서도 나타난다.

「유년의 뜰」은 전쟁 막바지에 아버지 없이 낯선 피난지에서 생활하게 되는 한 가족의 이야기이다. 서술자인 ‘노랑눈이’는 주변 여성인물들과의 현실적·상상적 교류를 통해 성적인 자각에 이르게 된다. 특히 노랑눈이에게 성적인 환상과 자극을 불러일으키는 존재는 읍내 남자와 눈이 맞아 도망을 갔다가 목수인 주인집 남자에게 붙들려와 방에 감금된 후 자살하는 부네라는 인물이다. 성적 방종으로 인해 대가를 치르는 젊은 여자 부네의 이야기는 노랑눈이에게 두려움과 슬픔, 이유 모를 감동을 불러일으킨다. 노랑눈이는 부네를 통해 자신의 상상 속에서 성적인 환상을 키워나가면서 자신의 속에서 꿈틀거리는 여성적 욕망을 어렵듯이 자각하게 된다.

어느 순간 감청색의 창호지가 부풀어오르고 그 안쪽에서 어른대는 그림자를 얼핏 본 것도 같았다.

아아아아아아

그 소리는 다시 들리지 않았다. 분가루처럼 얇게 떨어져내리는 햇빛뿐이었다. 내가 들은 것은 환청인지도 몰랐다. 그러나 입 안쪽의 살처럼 따뜻하고 축축한 느낌이 내 몸을 둘러싸고 있음을, 내 몸 가득 서러움과 같은 욕정이 차올라 해면처럼 부드러워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떠돌던 고추잡자리가 잠깐 물에 스치듯 풍지를 담갔다 뻥 순간이었을까.⁸⁾

부네의 방에서 환청처럼 들려오는 소리에 의해 촉발된 ‘서러움과 같은 욕정’은 ‘고추잡자리가 잠깐 물에 스치듯 풍지를 담갔다 뻥’ 것과 같은 짧은 순간이기는 하지만, 서술자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여성적 욕망을 감지했음을 알게 한다. 그러나 부네에 대한 정서적 공감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여성적 욕망이 ‘서러움’에 비유되는 것은, 서술

8) 「유년의 뜰」, pp.42~43.

자의 내면에 여성의 관능적 욕망이 가부장제적 규범에 의해 억압받는 현실에 대한 무의식적인 자각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여성 억압의 현실에 대한 자각은 자신의 성적 욕망이 처벌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이는 아버지가 돌아오면 어머니의 성적인 방탕함이 처벌받을 것이라는 두려움과 연관된다. 그런 측면에서 노랑눈이가 아버지의 귀환을 알리는 소식을 듣고 교장실에서 훔쳐먹은 케익을 토하는 것은 아버지의 귀환에 대한 거부감의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그러한 노랑눈이의 반응은 여성의 육체를 모성적/관능적인 것으로 구분한 뒤 관능적인 육체에 대해서는 처벌을 가하는 가부장제적 규범에 대한 무의식적인 거부의 표현이다.

이처럼 오정희의 유년기 소설에서 여자아이들은 여성의 육체에 대한 기존의 가부장제적인 성적 규범의 틀을 거부하고 그것을 위반하면서 관능적 육체 속에서 성적 욕망을 자각하지만, 다른 한편 그러한 성적 욕망이 여성의 성 정체성을 규범적으로 규정하는 가부장제적 질서 속에서는 억압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지한다. 여자아이들이 내부에서 솟아오르는 일탈적인 성적 욕망에 대해 혐오감이나 까닭 모를 서러움을 갖게 되는 것은 그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의 성적 욕망에 대해 갖는 혐오감이나 서러움은 여성 육체에 대한 혐오감 및 연민으로 이어진다. 「완구점 여인」의 ‘나’가 여인과의 정사 후에 오히려 자신에 대한 혐오감을 견딜 수 없어한 것처럼, 「유년의 뜰」의 ‘나’ 또한 자신이 공감하는 관능적 육체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한 채, 자신의 여성성을 존재론적 본질로 인식하고 이에 대해 깊은 연민의 감정을 느낀다.

나는 방으로 들어와 옷을 벗고 거울 앞에 섰다. 몸의 근육을 조금도 긴장시키지 않고 축 늘어뜨리고 불룩 튀어나온 배와 작고 주름진 가랑이를 물끄러미 보며 나는 까닭 없이 흐느꼈다.⁹⁾

9) 「유년의 뜰」, p.43

자신의 '작고 주름진 가랑이'에 대한 까닭 모를 슬픔의 감정은 여성으로서의 자신의 존재에 대한 연민에 다름 아니다. 즉 서술자는 모성적 육체와 쾌락적 육체의 구분 자체가 모호해지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쾌락적 육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정서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거나 이러한 쾌락적 육체를 통제하는 아버지(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못한다. 「중국인 거리」의 서술자인 '나' 또한 어머니와 같은 동물적인 삶을 혐오하는 대신 매기 언니와 같은 '양갈보'의 삶을 동경하지만, 매기 언니의 죽음¹⁰⁾을 목격하고 아울러 모성적 육체의 표지인 초조를 경험하면서, 모성적 삶을 자신에게 주어진 절망적이면서 막막한 숙명으로 감지한다.

나는 차라리 죽여 줘라고 부르짖는 어머니의 비명과 언제부터인가 울리기 시작한 중소리를 들으며 죽음과도 같은 낮잠에 빠져들어갔다.

내가 낮잠에서 깨어났을 때 어머니는 지독한 난산이었지만 여덟 번째 아이를 밀어내었다. 어두운 벽장 속에서 나는 이해할 수 없는 절망감과 막막함으로 어머니를 불렀다. 그리고 옷 속에 손을 넣어 거미줄처럼 온몸을 끈끈하게 죄고 있는 후덥덥한 열기를, 그 열기의 정체를 찾아내었다. 초조였다.¹¹⁾

어린아이에서 가임기 여성으로의 변신을 거미줄이 온몸을 끈끈하게 죄는 것으로 묘사하는 화자의 태도는 분명 모성적 삶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함축한다. 그러나 어머니의 힘겨운 출산과 '나'의 초조 경험을 병치시키는 데에서 '나'의 운명 또한 어머니의 삶에서 그리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순응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자신의 성 정체성을 반모성적인 쾌락적 육체에서 발견하면서도 임신과 출산이 가능한 여성으로서의 자신의 삶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러

10) 이는 「유년의 뜰」에서 부네의 성적 방종에 대한 처벌과 같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11) 「중국인 거리」, p.81.

한 태도는 대단히 모순적으로 느껴진다. 그러나 실상 작품 속에서 이러한 모순적인 태도가 설득력을 얻는 것은, 성 정체성에 대한 여자아이의 태도를 것처럼 양가적인 것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여성의 현실이 작품 속에서 그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리 말한다면, 자신의 성적 정체성에 대한 여자아이의 모순적인 태도는 한국 사회 속에서 여성이 겪는 모순된 현실을 내면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여성의 모순적 현실이 작품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것이 여성의 성장의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규정하는가? 그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는 것은 곧 심리적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여자아이의 성장을 다루는 오정희의 유년기 소설이 단순한 내성소설의 경계를 넘어 사회적 현실과 여성의 존재조건 간의 내밀한 관계에 대한 성찰로서 갖는 의미를 살펴보는 것과 다른 것일 수 없다.

3. 여성의 존재조건과 모순된 현실의 내면화

오정희의 유년기 소설이 쓰여진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는 “국가 주도적인 권위적 발전주의”로 인해 경제 성장과 사회 변형이 가속화된 시기였으며, 이러한 급격한 변화가 수반한 개인 소외의 문제는 당시 한국문학에서 지배적인 주제가 되었다.¹²⁾ 오정희는 다른 작가들처럼 급격한 산업화·도시화로 야기된 현실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았는데, 바로 이 점 때문에 그녀의 소설은 항상 당대 사회가 제기하는 현실적인 문제에서 비껴난 지극히 개인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19세기 유럽에서 어린 화자가 자아와 역사에 관한 생각을 표현해 주는 중심 매개물이 되었으며, 그것이 작가 자신이 처해 있는 현재의 근대성의 경험을 상징화하는 형식이 되었다는 캐롤린 스티드먼(Carolyn Steedman)의 말을 떠올린다면,¹³⁾ 전쟁이라는 사회적 격변기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여자

12) 김윤식, 정호용 공저, 앞의 책, p.405.

13) Carolyn Steedman, *Past Tenses: Essays on Writing, Autobiography*, p. 10.

아이의 삶에의 거부 혹은 적응을 회고적으로 살펴보는 작가의 방식은 한 시대의 거시적인 사회·역사적 변화를 성찰하는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다.

특히 사후적으로 구성되는 유년기 체험의 내용이 대부분 서술자의 기억에 의해 재구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¹⁴⁾ 70년대적 상황에서 50년대를 회고하는 태도는 일면적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회상에 의해 재현되는 과거는 있는 그대로 훼손되지 않은 채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분석적 재구성을 통해 사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본다면,¹⁵⁾ 유년기에 대한 회상은 단순히 자신의 개인적인 기억에 의존하기보다는 오히려 현재의 지배적 담론이나 이데올로기에 의해 역으로 촉발된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오정희 소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유년기의 정신적 외상(trauma)이 현재 성인이 된 여성 인물의 삶에 인과론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하는 태도는 특정한 시각에서 과거에 대한 회상을 촉발시킨 현재적 관점을 무시하는 것이다. 오히려 현재적인 관심사가 유년기의 심리적, 성적 혼돈에 대한 기억을 역추적하게 하는 동인이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과거의 유년기 체험에 대한 진술이 현재에 대한 재진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유년기를 다루고 있는 오정희의 소설은 소설적 배경이 되고 있는 50년대는 물론 근대화의 물결 속에 있었던 60~70년대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여성의 존재조건을 성찰하는 소설적 양식으로 파악할 수 있다.

「유년의 뜰」에서 한국 사회의 근대성의 주요한 메타포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시골과 도시의 양극화이다. 「유년의 뜰」에는 고도로 산업화되고 근대화된 도시 공간은 아니지만, ‘읍내’로 지칭되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

graphy, and History(Rivers Oram Press, 1992), pp.1~18 참조.

14) 오정희의 소설에서 이는 “내가 기억하는 한의 그 시간은 늘 그랬다”(「유년의 뜰」, p.11)와 같은 표현에서도 드러난다.

15) 『늑대인간』, 전집 11(열린 책들, 1996) 참조.

운 공간이 제시된다. 여성들은 전쟁으로 성인 남성이 부재하는 동안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서, 남성과 마찬가지로 직업을 찾기 위해 읍내로 들어간다.

마을의 어귀에 폭 넓은 개울이 흐르고 다리를 건너면 읍이었다. 교회와 대장간, 술집, 여인숙, 미장원, 그리고 하루 두 번 지나가는 원행 버스의 차부가 있는 읍의 큰길에는 닷새에 한 번씩 장이 섰기 때문에 저자거리라고 불렀다. (...중략...)

장이 서는 날은 구경거리가 많았다. 술집과 여인숙에서는 밤내 노랫 소리, 고함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때문에 아이들은 저물면 무언가에 이끌리듯 개울을 건너 저자거리로 모여드는 것이었다. 아이들뿐이 아니었다. 나이찬 처녀들도 잔뜩 죄인 허리와 엉덩이를 흔들며 거리의끝인 미장원에서 차부까지 오라가 락하고 으아이스케키, 으아이스케키, 아이스케키 통을 뎀 사내아이들이 히죽거리며 목청을 돋구었다. (...중략...)

밤의 저자거리는 늘 재미있었다. 나는 밤이 되어도 식지 않는 더위에 치마를 걷고 언니 또래 틈에 쥐새끼처럼 끼어앉아 밤 거리에 음험하게 꿑어오르는 알 수 없는 열기, 끈끈한 정념으로 가득찬 달착지근한 공기를 들이마셨다.¹⁶⁾

서술자의 어머니와 같이 대리 가장의 역할을 맡은 여성들은 노동자이자 소비자로, ‘아이들’과 ‘나이 찬 처녀들’, ‘사내아이들’은 “음험하게 꿑어오르는 알 수 없는 열기, 끈끈한 정념으로 가득찬 달착지근한 공기”에 매료된 쾌락 추구자로 읍의 거리를 방황한다. 여기서 “음험하게 꿑어오르는 알 수 없는 열기, 끈끈한 정념”은 여성 화자의 내부에서 꿈틀대는 여성의 성적 욕망을 상징하는 것이다. 여성의 성적 욕망이 공동체적 규범과 관습에 의해 억압되는 시골과는 달리, 도시는 이러한 성적 욕망이 공공연하게 과시되고 분출되는 장소로 약호화된다. 이제 도시의 거리는 노골적으로 성적인 상호작용의 형식과 접촉하고 자신들의 성욕을 자각하게 되는 곳이 된다. 아이들은 가족의 구속에서 벗어나, 저녁 불빛이

16) 「유년의 뜰」, p.24.

번쩍거리는 거리에서 자유롭게 뒤섞이는 수많은 육체의 에너지와 흥분에 의해 매혹되고, 어른들은 낯선 이들과 바람이 난다. 그 결과 여성들의 새로운 삶의 공간인 ‘읍’ 혹은 도회지는 기존의 가부장제적인 성적 규범의 완강함이 균열되는 공간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유년의 뜰」에서 새로운 삶의 공간인 ‘읍’ 혹은 도회지가 성적인 매혹을 불러일으키는 공간으로 나타난 것과는 달리, 「중국인 거리」에서 도시 공간은 중국으로 상징되는 낯은 것과 미군 지아이(GI) 문화로 상징되는 새로운 것이 혼재하면서 부딪히는 공간으로 나타난다. ‘나’에게 낭만적인 과거 역사와 미지의 성적인 존재로 간주되는 중국과 중국인의 이미지는 환상 속에 존재하는 사라져가는 낯은 것으로 의미화되는 반면, 미국은 낯은 것을 침식해가는 근대화의 새로운 물결로 의미화된다. 특히 미국 문화는 ‘나’에게 끊임없는 매혹의 원천을 제공한다. ‘나’는 양공주인 매기 언니를 통해 미국을 경험하는데, 매기 언니가 집에 없을 때, 서술자는 친구 치옥이와 함께 번쩍거리는 미제 물건들을 만져보면서 황홀해한다. 동네 사람들의 초라하고 불결한 살림살이와는 반대로, 매기 언니의 방은 ‘미제’로 불리우는 번쩍거리는 새 물건들로 가득하다. 예쁘고 맛있는 미제 물건 때문에, 미국은 풍요와 새로움의 대명사처럼 간주되며, 여자아이들이 동경하는 삶의 공간으로 상징화된다. 그 때문에 ‘나’는 매기 언니와 같은 삶을 동경하며 급기야 ‘양갈보’가 되기를 소망한다. 즉 미국 문화의 화려함과 풍요로움은 여성의 욕망을 일깨우며 그것을 얻기 위해 여성들이 기존의 성적 규범을 일탈하여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을 동경의 대상으로까지 만들고 있는 것이다. 「유년의 뜰」에서 새로운 삶의 공간인 ‘읍’ 혹은 도회지가 기존의 완강한 가부장제적인 질서에 균열을 초래하는 것처럼, 이러한 미군 문화로 상징되는 자본주의적 근대성의 물결은 전근대적인 가부장제적 성적 규범의 완강함을 무너뜨리고 있다. 그것은 비록 시적인 비유로 표현되기는 했지만, 다음과 같은 구절에서 암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의 정상에서 조망하는 중국인 거리는, 겹겹 그을린 목조 적산 가옥 배란
다에 널린 얼룩덜룩한 담요와 레이스의 속옷들은, 이 시의 풍물이었다고 그림자
였고 불가사의한 미소였으며 천칭의 한 쪽 손에 얹혀 한없이 기우는 수은이었
다. 또한 기우똥 침몰하기 시작한 배의, 이미 물에 잠긴 고물이었다.¹⁷⁾

양갈보들의 '얼룩덜룩한 담요와 레이스의 속옷들'은, 낡은 적산가옥과
'제분공장의 굴뚝에서 울컥울컥 토해내는 검은 연기'(73)가 어우러져 만
들어내는 우울한 도시의 이미지에 활기를 불어넣는 새로운 '풍물'인 동
시에, '그림자', '불가사의한 미소', '기우똥 침몰하기 시작한 배의 고물'로
형상화된다. 양갈보들의 생활 모습과 오래된 도시의 모습이 만들어 내는
모순적이고 비균형적인 이미지는 바로 성적인 규범과 질서 속에 감춰진
모순과 균열의 표현에 다름 아니다.

이는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여성의 삶을 움죄었던 전근대적인 성적 규
범을 동요시키면서 억압된 여성의 성적인 욕망을 분출시키는 계기가 되
는 자본주의적 근대화가 여성의 삶을 지배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그 동안 억압되었던 여성 욕망의 분출이 가능
하게 되었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곧 여성 욕망의 솔직하고도 주체적인
발현을 의미한다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성의 성을 또 다른
측면에서 왜곡시키는 계기일 뿐이기 때문이다. 「유년의 뜰」에서 아버지
의 귀환이 암시하는 것처럼 가부장제적인 질서는 조금의 동요만 있었을
뿐 여전히 공고히 유지된 채, 거기에 더하여 여성의 성적인 욕망은 자본
주의 경제 논리에 종속되는 길을 밟는다. 「중국인 거리」에서 나타나는
일견 자유분방해 보이는 매기 언니의 삶이 결국은 추악한 죽음으로 종
결되는 것은 자본주의적 근대의 문화에 의해 촉발된 여성의 욕망이 여
성의 삶을 왜곡시키는 가짜 욕망이며, 자본주의적 문화는 여성의 삶을
전근대적인 성적 규범과는 다른 방식으로 억압하는 죽음의 문화라는 사
실을 극적으로 드러낸다. 「중국인 거리」에서 매기 언니가 동거하던 흑인

17) 「중국인 거리」, p.74.

병사에 의해 살해되는 사건과 미군이 고양이를 장난으로 살해하는 사건을 목격한 '나'에게 미국이라는 존재는 단지 풍요와 새로움의 상징만이 아니라, 죽음의 이미지로 다가온다. 즉 미군 부대 주변에서 양공주를 통해 미국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며 성장하는 어린 여자아이에게, 미국은 죽음을 수반하는 위험한 성욕, 그리고 폭력과 결합되는 것이다. 이처럼 미군 지아이(GI) 문화로 상징되는 자본주의적 근대의 문화는 한편으로 성적 욕망을 자극하는 매혹적인 것으로 비춰지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죽음의 이미지로 형상화된다. 다시 말해 서술자의 경험과 시각 속에서, 한국 사회에 밀려오는 근대화의 물결은 매우 양가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촉발되는 성적 욕망은 곧 모든 것을 파괴하고 스스로도 파괴되는 죽음충동에 다름아닌 것이다. 오정희의 소설에서 여자가 아이가 성적 욕망의 분출에 대해 끊임없이 매혹되면서도 항상 그 앞에서 망설임과 서글픔, 서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면에는 이러한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의 존재조건은 지극히 모순적인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러한 모순을 전형적으로 체현하고 있는 인물은 바로 「중국인 거리」에 등장하는 매기 언니이다. 미군을 상대로 매춘 행위를 하는 '양갈보' 매기 언니는 동네 사람들에게 '천하의 망종'으로 비난받기도 하지만, 기실 그녀와 같은 양갈보들은 마을의 경제 활성화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들이기도 하다. 매기 언니라는 존재가 갖는 이러한 이중성은 그녀에 대한 '나'의 시선 속에서 다른 양상으로 반복된다. 즉 '나'에게 매기 언니는 화려한 미제 물건들을 소유하고 있고 성적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점에서 동경의 대상이지만, 결국 그러한 자유로운 성적 욕망의 발현이 미군 문화로 상징되는 미국 자본주의의 추악한 힘에 종속된 허위적인 것이며 그것은 결국 죽음에 다름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존재이기도 하다. 그런 측면에서 매기 언니가 갖는 이중적인 성격은 가부장제적인 성적 규범과 자본주의적인 성 경제학에 의해 이중으로 왜곡되는 여성의 모순된 지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오정희의 유년기 소설은 여성의 성이 이처럼 전근대적인 성적 규범과 자본주의적 근대에 의해 이중으로 왜곡되는 모순적인 현실을 그리고 있다. 여성의 자유로운 성적 욕망의 발현은 가부장제적인 성적 규범에 의해 처벌되거나 자본주의적인 경제 논리 속에서 죽음의 냄새를 풍기는 비뚤어진 가짜 욕망으로 변질된다. 그 속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여성이 성적 욕망의 주체로서 설 수 있는 길은 봉쇄되어 있으며, 여성들은 그러한 현실을 순응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여자아이들이 그러한 모순을 겪는 주변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 자신의 성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점이다. 오정희의 유년기 소설에서 애초에 가부장제적 규범에 기반한 재생산적 모성을 거부하고 일탈적인 성적 욕망을 자각하는 데서 자신의 성 정체성을 형성하기 시작한 여자아이들은, 결국 ‘까닭 모를 서러움’ 속에서 내부에서 솟아오르는 일탈의 욕망을 포기하고 그러한 자기 주변의 여성 인물들의 삶과 별다를 수 없는 여성으로서의 자신의 삶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달리 말해 오정희의 유년기 소설에서 여자아이는 자신의 주변 인물들에게서 바람직한 역할 모델을 발견하지 못한 채 그러한 삶의 모습을 거부와 순응이 뒤섞인 이중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여성으로서의 자신의 삶을 비극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여성이 처한 모순적인 존재조건을 인식하고 그것을 자기의 숙명적인 존재조건으로 받아들이는 것, 즉 그러한 모순된 여성 현실의 내면화야말로 성장기 여자아이의 성장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여자아이의 성장이 단순히 현실에 대한 순응을 의미한다고만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현실의 질서를 여성의 숙명적 조건으로 받아들이는 이면에는 여전히 그것에 대한 의식적·무의식적 거부가 숨죽인 채 숨어 있기 때문이다. 작가는 것처럼 여성적 삶의 모순적인 조건을 내면화하면서 성 정체성을 형성하고 성장해가는 여성 서술자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전근대적인 성적 규범과 자본주의적 근대에 의해 이중으로 억압되는 여성의 존재조건에 대한 성찰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4. 근대성의 상징적 형식으로서 오정희 유년기 소설의

의미 : 결론을 대신하여

프랑코 모레티(Franco Moretti)는 성장소설을 젊음의 유동성과 내면성을 담아내는 상징적 형식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 상징적 형식은 역설적으로 그 자체의 모순적 본질 때문에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 측면에서 근대성과 젊음 사이의 대립하는 가치와 상징적 관계 사이의 모순은 결점이 아니라 오히려 근대 문화의 상당 부분을 형성하는 '역설적인 기능의 원리'라는 것이다. 예컨대 자유/행복, 정체성/변화, 안정/변형 등은 서로 양립할 수 없지만 서구의 근대적 정신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똑같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순된 요소들의 공존을 재현하고 설명하며 시험할 수 있는 문화적 메커니즘의 요구에 부응하여 나타난 것이 바로 성장소설이라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모레티는 성장소설에서 문제되는 사회화의 주제가 무엇보다 '모순의 내면화'에 의해 구성된다고 보고, 그 점에서 근대적 개인의 사회화 과정을 다루는 성장소설이 근대 이데올로기 내지 시민적 문화를 재검토하는 양식임을 강조한다.¹⁸⁾ 이처럼 성장소설을 '모순의 내면화'에 의해 구성되는 근대성의 '상징적 형식'으로 보는 모레티의 견해는 오정희의 유년기 소설이 갖는 성격을 파악하는 데 하나의 준거점을 제공한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오정희의 유년기 소설에서 여자아이들이 기존의 관습적인 가부장제적 규범을 거부하면서도 결국 그것을 벗어날 수 없는 여성으로서의 자신의 삶을 존재론적인 운명으로 받아들인다는 점이다. 이 점을 확장하여 해석한다면 오정희의 여성 인물들이 주변으로의 퇴각을 자신의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내면화하여, 현실 문제에는 무관심한 채 자신의 내면 세계에만 관심을 돌리게 되는 것으로 볼 수도

18) Franco Moretti, *The Way of the World: The Bildungsroman in European Culture*(Verso, 1987), pp.3~13 참조.

있을 것이다. 그러나 비록 오정희가 작품 속에서 여성을 주변부적인 존재로 처리한 채 이처럼 현실 세계에서 소외된 여성 주체의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물들의 세계에 대한 단절의식을 사회적 현실과 화합하는 데 실패한 결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즉 여자아이의 성적인 정체성 자각이 남성성에 반하는 대항적인 여성적 유토피아의 건설이나 여성 억압의 현실에 대한 적극적인 타개책의 제시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곧바로 작가의 사회 현실에 대한 무관심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오정희 소설에서 유년기 여자아이의 새로운 성 정체성에 대한 자각은 작품 속에 구현된 주변 여성인물들의 구체적인 현실의 삶과 뒤섞이면서 왜곡되고 굴절된 모습으로 드러나는데, 바로 이러한 모순된 여성의 사회적, 성적인 지위에 대한 재현이야말로 여성이 처한 현실에 대한 작가의 정확한 통찰이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서 자본주의적 근대의 발전이 전근대적인 유제를 지속시키면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근대 여성의 성에 가해지는 질곡 역시 전근대적인 규제 및 억압과 자본주의적 질곡이 결합된 중층적인 것이었다는 점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오정희의 유년기 소설에서 어린 여자아이의 주변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여성에 가해지는 그러한 이중적인 질곡을 온몸으로 겪어야 했던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의 욕망은 가부장제적인 성적 규범이나 자본주의적인 경제 논리와 폭력성에 의해 어떤 식으로든 굴절되는 운명을 겪는다. 오정희는 그러한 인물들을 통해 한국에서 전개된 자본주의적 근대가 여성의 욕망을 한편으로 부추기면서도 그것을 다시 가부장제적인 성적 규범과 사물화된 상품 경제의 틀 속에 가두어버림으로써 여성이 진정한 욕망의 주체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획득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인식을 은연중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오정희의 유년기 소설에서 나타나는 어린 여자아이들의 성장은 그러한 모순된 여성적 현실의 내면화를 거쳐 완성되며, 작가는 그러한 여자아이의 성장담을 통해 한국의 자본주의적 근대를 살아가는 여성

의 존재조건을 성찰하고 있다. 물론 작품 속에서 이러한 현실에 대한 비판은 사회·역사적 층위에서 전개되는 대신에,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성장기에 접어든 여자아이의 개인적인 성장 체험을 통해서 다층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자기 정체성의 형성 과정은 대개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진다. 그 하나는 자의식적인 주체성의 형성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적 통합을 통한 사회적 자아의 형성이다. 그러나 여성작가의 소설 연구에서는 흔히 두 번째 항목은 고려하지 않은 채 자기 정체성 형성을 내성적 경향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여자아이의 성장을 다루는 여성 성장소설은 흔히 자아 정체감의 형성과 사회적 통합에의 요구를 변증법적으로 이루어나가기보다 오히려 사회적 통합을 거부함으로써 자아를 형성해가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유교적인 가부장제가 의식적·무의식적으로 여전히 공고히 자리잡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은 사회적 통합을 전적으로 거부할 수 없다. 오정희 소설의 미묘한 지점이 바로 여기이다. 오정희 소설에 나타나는 여자아이들은 사회 현실을 부정하면서 전혀 새로운 자아를 형성하는 유토피아적 이상을 거부하고, 사회적 현실에 대한 순응을 배면에 깔고 그 위에서 여성 자아의 형성을 새롭게 모색하려고 시도한다. 즉 이들 소설의 서술자는 기존의 논의에서 해석했던 것처럼 사회와의 통합 요구를 전적으로 배제한 채 단절적으로 자아를 형성해가는 인물들이 아니라, 오히려 여성들이 처한 모순된 현실을 내면화함으로써 비판적으로 사회 현실을 수용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오정희의 유년기 소설은 자아의 세계와의 단절을 주제로 삼는 성장 거부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이러한 모순된 현실의 내면화 과정을 드러냄으로써 역으로 그러한 사회에 대한 비판적 거리두기를 취하는 여자아이의 성장담으로 보아야 한다. 이것이 오정희의 유년기 소설이 근대성의 상징적 형식으로서의 성장소설로서 갖는 의미이다.

참고문헌

- 김윤식·정호응, 『한국소설사』, 예하, 1993.
김경수, 「여성적 광기와 그 심리적 원천」, 『작가세계』, 1995년 여름.
프로이트, 『누대인간』, 열린 책들, 1996.
Carolyn Steedman, *Past Tenses*, Rivers Oram Press, 1992.
Rita Fel, *Beyond Feminist Aesthetics*, Harvard Univ. Press, 1989.
Franco Moretti, *The way of the world*, Verso, 1987.

